

학교 내 권력거리가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김혜나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객원교수

The Effect of Power Distance in School on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Help Seeking, Critical Thinking, and Convergence Thinking

Hannah Kim

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Paideia, Sungky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육 콘텐츠의 효율적인 지역화 및 국제화를 위해 한국 학습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탐색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416명의 대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교 내 권력거리를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큰 권력거리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큰 권력거리가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육 콘텐츠의 한국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지역화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권력거리,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

Abstract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earners concern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The study explores power distance in school, and examines its effects on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help-seeking, critical thinking, and convergence thinking. Four hundred sixteen students participated. Power distance in school is analyzed as aspects of course driver, instructor's role, and instructor-student equality. It is found that students have tendencies for large power distance and 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help-seeking, critical thinking, and convergence thinking. Considerations to localize international educational contents for Korean learners are discussed. Lastly, stud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re addressed.

Key Words : Power distance, IS interaction, Help seeking, Critical thinking, Convergence thinking

1. 서론

통신과 소통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지역, 국가, 언어 제한 없이 활발히 공유되고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활동의 개발과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국제화와

지역화에 대한 것이다[1].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는 전통적으로 학습 과정 및 성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 수요, 반응이 상이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rresponding Author : Hannah Kim(edux021@gmail.com)

하고[2,3],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교육 콘텐츠의 경우,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학습자의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한 설계가 실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Hofstede는 문화를 한 그룹의 구성원들을 다른 그룹의 구성원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집단적으로 프로 그래밍된 마인드로, 체계와 가치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4]. 또한 문화차이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권력거리,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의 4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문화차원이론은 소비자 또는 조직구성원의 문화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태도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5,6].

Hofstede의 문화차원 중 권력거리(power distance index)는 조직이나 기관 등의 사회에서 더 강력한 개인과 더 약한 개인 사이에 힘의 불균형[7], 또는 위계[8]를 수용하거나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9]. Hofstede에 따르면 한국은 53개국 중 27위(60점)로, 1위는 말레이시아(104점)이고 마지막인 53위는 오스트리아(11점)이었다[7]. 따라서 한국은 비교적 큰 권력거리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학습되며 삶의 모든 방면에 투영되어 나타난다[10]. 학교 또는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학교 내 권력거리는 수업 중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11]. 일반적으로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사가 존경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양상이 클 수 있고,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 반면 권력거리가 적은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학생 중심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학생-주도적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 중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12]. 큰 권력거리 문화권 학생들이 익숙한 교사-주도 수업에서는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나, 수업 중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교사에 의해 개시되고, 학생은 허락받았을 경우에만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과 성과에 있어 학생들의 교사 의존도가 과도해질 수 있다[9,13,14].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큰 권력거리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동양 문화권의 학생들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

는 학생-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토론이나 의사소통 위주의 수업에서 서양 문화권의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나 참여양상을 보일 수 있다[11].

선행 연구는 학교 내 큰 권력거리가 학생의 교사역할수행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고[15], 큰 권력거리 문화의 학생들이 적은 권력거리 문화 학생들보다 도움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또한 큰 권력거리가 비판적 사고의 수행과 발달을 저지하는 반면[17], 협동과 참여 중심의 비위계적 학생-주도 수업은 비판적 사고의 발달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18]. 한편, 리더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큰 권력거리 문화는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산출해야하는 융합적 사고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19]. 그러나 권력거리가 한국 학생의 학습태도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간 비교 문화 연구에 널리 인용되는 문화차원이론은 주로 소비자 또는 고용인으로서의 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시장 또는 조직에서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지만, 문화차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뿐 아니라 지역, 기업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20]. 이에 문화차원이론은 연구 대상이 한 국가 내 개인들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뒷받침되어야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21-23]. 그러므로 한국 학습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을 만족시키는 포괄적인 연구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9]을 바탕으로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같은 인식이 학생-교수 관계, 학습태도 및 전략,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교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학습동기[24], 학업적 자기효능감[25], 학업성취[26,27]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둘째, 학습태도 및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자, 자기조절학습의 학습전략[28] 중 하나인 도움요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교육·학습을 통한 역량의 배양이 대두되고 있는, 창

의성의 핵심이라는 비판적 사고력[29]과 다양한 관점과 통합적 지식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적 사고력[30,3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또는 학습활동의 효과적인 교수설계와 효율적인 국제화 및 지역화를 위해 한국 학습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편의 추출한 충청권 사립대학의 사회대학 소속 재학생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총 4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남학생 120명(28.8%), 여학생 296명(71.2%)이었고, 1학년 115명(27.6%), 2학년 96명(23.1%), 3학년 106명(25.5%), 4학년 99명(23.8%)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소속 학과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등 사회대학내의 다양한 학과가 보고되었고, 나이는 평균 21.6세로 대부분 18세~26세에 분포하였다.

2.2 연구도구

학교 내 권력거리 측정을 위해 최성욱이 개발한 도구에서 권력거리를 측정하는 5문항[32] 중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주도한다.-수업시간에 교사가 주도한다.', 두 번째 문항은 '교사는 객관적 진리를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교사는 자신의 지혜를 전달하는 스승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항은 '학생은 교사를 동등한 존재로 대한다.-학생은 교사를 존경심으로 대한다.'이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들은 좌측 극단(1점)과 우측 극단(7점) 사이에 선호하는 지점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신뢰도(Cronbach's α)는 .667로 탐색적 연구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33], 이와 같은 연구가 아직 탐색 단계에 있고, 학교 내 권력거리와 학습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거나, 본 연구에서는 [32]를 토대로 각 문항별로 (1) 수업 주도자, (2) 교사의 역할, (3) 교사-학생 동등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을 위해 [34]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나는 수업에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총 4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응답신뢰도는 .820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학생의 적극성 정도 및 학습전략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28]에서 도움요청(help seeking)을 측정하는 4문항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교사에게 설명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응답신뢰도는 .557로 다소 낮게 나타나, 1문항을 제외한 3문항(응답신뢰도 .673)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 MSLQ[28] 중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측정하는 5문항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응답신뢰도는 .815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종종 수업에서 듣거나 읽은 것들이 확실한 것인가를 알아보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가 있다.

융합적 사고의 측정을 위해 10문항을 사용하였다[3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응답신뢰도는 .910로, "나는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상황 또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 내 권력거리,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 내 권력거리를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으로 구별하여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권력거리가 7점 척도에서 5.00이상으로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의 세 영역에서 동일하게 큰 권력거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주도보다는 교사-주도 수업에 익숙하고, 교사를 객관적 진리를 전달하는 전문가보다는 지혜를 전달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며, 학생과 차별된 존경심으로 대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균 이상의 점수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원만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도움요청,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N=416)

	1	2	3	4	5	6	7
Mean	5.15	5.46	5.46	3.40	4.78	5.08	3.48
SD	1.08	1.02	1.06	0.71	0.86	0.90	0.57
Maximum	7.00	7.00	7.00	5.00	7.00	7.00	5.00
Correlations							
1. PD: Driver	1	.341**	.244**	.114*	.229**	.113**	.214**
2. PD: Role	.341**	1	.627**	.314**	.310**	.242**	.363**
3. PD: IS Equality	.244**	.627**	1	.327**	.310**	.247**	.325**
4. IS Interaction	.114*	.314**	.327**	1	.390**	.398**	.442**
5. Help Seeking	.229**	.310**	.310**	.390**	1	.343**	.433**
6. Critical Thinking	.113*	.242**	.247**	.398**	.343**	1	.550**
7. Convergence Thinking	.214**	.363**	.325**	.442**	.433**	.550**	1

* $p < .05$; ** $p < .01$; *PD: Power Distance, IS: Instructor-Student

3.2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회귀모형은 F 통계값이 $p=.000$ 에서 19.90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127$ 으로 1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bin-Watson은 1.986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미치는 권력거리의 영향을 상세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역할($t=2.941, p<.05$)과 교사-학생 동등성($t=3.625, p<.05$)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수업 주도자($t=.004, p=.997$)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교사의 역할($\beta=.180$), 교사-학생 동등성($\beta=.214$)으로 나타나 교사-학생 동등성이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를 학생과 구별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교사의 역할의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혜의 전달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수업시간을 주도하는 지 여부는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Power Distance on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DV	IV	B	β	t	P	Tolerance
IS Interaction	(Constant)	1.923		8.782	.000**	
	PD: Driver	.000	.000	.004	.997	.882
	PD: Role	.126	.180	2.941	.003**	.569
	PD: IS Equality	.145	.214	3.625	.000**	.605

$R = .356, R^2 = .127, \text{Adjusted } R^2 = .120, F = 19.908^{**}, p = .000, \text{Dubin-Watson} = 1.986$

* $p < .05$; ** $p < .01$; *PD: Power Distance, IS: Instructor-Student

3.3 도움요청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도움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 412)=21.238, p<.000, R^2=.134$). 모형은 13.4%의 설명력을 갖고 있고, Dubin-Watson이 1.819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거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업 주도자($t=2.739, p<.05$), 교사의 역할($t=2.457, p<.05$), 교사-학생 동등성($t=3.116, p<.05$)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 비교 결과, 교사-학생 동등성($\beta=.184$)이 수업 주도자($\beta=.134$)와 교사의 역할($\beta=.149$)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교사를 지혜를 전달하는 스승으로 인식하며, 특히 교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Power Distance on Help Seeking

DV	IV	B	β	t	P	Tolerance
Help Seeking	(Constant)	2.932		10.679	.000**	
	PD: Driver	.111	.134	2.739	.006**	.882
	PD: Role	.132	.149	2.457	.014**	.569
	PD: IS Equality	.156	.184	3.116	.002**	.605
R = .366, R ² = .134, Adjusted R ² = .128, F = 21.238**, p = .000, Dubin-Watson = 1.819						

*p < .05; **p < .01, *PD: Power Distance, IS: Instructor-Student

3.4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 권력거리가 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F 통계값이 10.980(p=.000)으로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은 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Dubin-Watson은 1.766으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권력거리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역할(t=2.139, p<.05)과 교사-학생 동등성(t=2.546, p<.05)이 비판적 사고에 유의미한, 수업 주도자(t=.577, p=.564)는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비교 결과, 교사의 역할(β =.134), 교사-학생 동등성(β =.155)으로 나타나 교사-학생 동등성이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교사의 역할이 지혜의 전달에 있다고 인식하는, 특히 교사를 학생과 구별된 존중해야할 존재로 인식하는 학생이 활발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Power Distance on Critical Thinking

DV	IV	B	β	t	P	Tolerance
Critical Thinking	(Constant)	3.354		12.376	.000**	
	PD: Driver	.023	.029	.577	.564	.882
	PD: Role	.114	.134	2.139	.033*	.569
	PD: IS Equality	.126	.155	2.546	.011*	.605
R = .272, R ² = .074, Adjusted R ² = .067, F = 10.980**, p = .000, Dubin-Watson = 1.766						

*p < .05; **p < .01, *PD: Power Distance, IS: Instructor-Student

3.5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 권력거리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p=.000에서 F 통계값이 25.335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회귀식은 15.6%의 설명력을 보이며, Dubin-Watson은 1.785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만족하였다.

융합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거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업 주도자(t=2.016, p<.05), 교사의 역할(t=3.865, p<.05), 교사-학생 동등성(t=2.680, p<.05)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 비교 결과, 교사의 역할(β =.232), 교사-학생 동등성(β =.156), 수업 주도자(β =.097)순으로 강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를 지혜를 전달하는 스승으로 바라보고, 학생과 구별된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수업의 주도자로 여기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융합적 사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Power Distance on Convergence Thinking

DV	IV	B	β	t	P	Tolerance
Convergence Thinking	(Constant)	2.060		12.080	.000**	
	PD: Driver	.051	.097	2.016	.044*	.882
	PD: Role	.129	.232	3.865	.000**	.569
	PD: IS Equality	.083	.156	2.680	.008**	.605
R = .395, R ² = .156, Adjusted R ² = .150, F = 25.335**, p = .000, Dubin-Watson = 1.785						

*p < .05; **p < .01, *PD: Power Distance, IS: Instructor-Studen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4,9]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교수와의 관계, 학습전략,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인식은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으로 구분한 세 영역 모두에서 비교적 큰 권력거리의 양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53개 국가 중 27위로 비교적 큰 권력거리로 보고되었던 것[7]과 큰 학교 내 권력거리로 편향된 결과를 보여준 것[32]과 동일한 결과이다.

권력거리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역할과 교사-학생 동등성에 관련한 큰 권력거리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과 관련한 큰 권력거리가 도움요청의 학습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큰 권력거리가 학생의 교수역할에

대한 인식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고, 큰 권력거리 문화의 학생들이 도움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14,16]에 반하나, 적극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일수록 더 나은 학습성적을 얻기 위해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며 학습 만족도가 높고, 교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36,37]와 교사의 직접적 접근성이 교수-학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38]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교사-학생 동등성에 대한 큰 권력거리가 비판적 사고에, 수업 주도자, 교사의 역할, 교사-학생 동등성에 대한 큰 권력거리가 융합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큰 권력거리가 비판적인 사고의 수행과 발달을 저지한다는 [17]에 반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이 사회 및 학교 내 큰 권력거리[7,32]를 가진 문화에서도, 긍정적인 교수-학생 관계와 상호작용이 기반이 될 때,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은 권력거리 문화에서 수행되었던 긍정적인 교수-학생 관계가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과정 참여, 학습동기 및 자신감 함양, 비판적 사고 수행을 돕는다는 연구결과[39, 40]가 큰 학교 내 권력거리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교수를 학생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이고 친밀히 소통하는 교수-학생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은 학교 내 권력거리가 적은 문화에서와 동일하게, 큰 권력거리 문화에서도 비판적 사고의 수행 및 함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사를 지식 뿐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는, 학생과는 구별된 존중해야할 '스승'으로 인식하고, 수업의 주도자가 꼭 교사일 필요는 없고 학생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를 수행하고, 교사를 지혜를 전달하는, 학생과 구별된 존경의 대상이자 수업의 주도자로 여기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융합적 사고를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는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 중 수업의 주도자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수행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는 권력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집단의 의견 통합에 익숙한 큰 권력거리 문화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융합적 사고에 유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19]와 일치하는 결과로 비판적사고와 융합적사고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학교 내 큰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학생-주도 수업에서 저조한 토론이나 참여의 경향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학습 전반에 있어서 수동적인 학습태도나 전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인 태도, 전략,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가 학교 내 사회와 문화 적응에 반영되고, 학교 내 문화에 대한 원활한 적응이 학습과정 및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한국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교육 콘텐츠가 학생-주도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수업 전 학생들에게 개인의 의사 표현 및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수업 전 선택활동으로 추천하여 본 수업 전에 새로운 분위기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겠다. 또한, 선택적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큰 권력거리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41], 긍정적 강화를 활용하여 수업 참여에 대한 점진적인 자신감 향상을 유도할 수 있겠다[4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업 환경에서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학습태도, 전략,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나, 토론이나 참여 중심의 의사소통이 증시되는 수업에서의 학생 태도, 전략, 성과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의추출을 통해 특정 대학의 사회과학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였으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9]을 기반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학교 내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이 관계, 학습태도 및 전략, 학습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국제적인 교육 콘텐츠 기획과 개발에 도움이 될 한국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주도자에 대한 권력거리에

대한 인식이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비판적 사고와는 연관이 없었던 이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겠다. 또한 권력거리의 세부 영역에 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R. Godwin-Jones. (2014). Emerging technologies global reach and local practice: the promise of MOOC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8*(3), 5-15.
- [2] Z. Liu, R. Brown, C. Lynch, T. Barnes, R. S. Baker, Y. Bergner & D. S. McNamara. (2016). MOOC Learner Behaviors by Country and Culture: an Exploratory Analysis. *EDM, 16*, 127-134.
- [3] S. Lee, M. Lee, S. Lee, T. Kang & G. Gim.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Vietnam on Usage Intention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Tokyo). Information, 20*(1B), 411-416.
- [4] G. Hofstede.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lifornia, CA: Sage.
- [5] M. De Mooij & G. Hofstede. (2010). The Hofstede model: Applications to global branding and advertising strateg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29*(1), 85-110. DOI : 10.2501/S026504870920104X.
- [6] S. W. Litvin. (2019). Hofstede, cultural differences, and TripAdvisor hotel re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5), 712-717. DOI : 10.1002/jtr.2298.
- [7] G. Hofstede.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8] S. Glazer & T. A. Beehr. (2005). Consistency of implications of three role stressors across four countri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6*(5), 467-487.
- [9] G. Hofstede.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8. DOI : 10.9707/2307-0919.1014.
- [10] S. J. Vitell, S. L. Nwachukwu & J. H. Barnes. (1993). The Effects of culture on ethical decision-making: An application of Hofstede's typolog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10), 753-760. DOI : 10.1007/BF00881307.
- [11] M. Kasuya. (2008). *Classroom interaction affected by power distance.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nd Classroom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https://www.birmingham.ac.uk/Documents/college-artslaw/cels/essays/language-teaching/LanguageTeachingMethodologyMichikoKasuya.pdf>
- [12] L. Hong & W. Byun. (2018). A Study on the Cultural Contents to Consider in Korean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Based on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Han-Geul, 79*(1), 201-228. DOI : 10.22557/HG.2018.03.79.1.201.
- [13] R. T. Pithers & R. Soden. (2000). Critical thinking in education: a review. *Educational Research, 42*(3), 237-249. DOI : 10.1080/001318800440579.
- [14] H. T. M. Nguyen. (2016). The Influences of 'Power Distance' on Pre-service Teacher Learning in Vietnam. *Journal of Nusantara Studies, 1*(2), 38-49. DOI : 10.24200/jonus.vol1iss2pp38-49.
- [15] S. Ham, K. Choi, J. Han, H. Kwak, J. Lee, M. Choi & Y. Cui. (2015). Revisiting the Principal Leadership Behavior for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Leadership Effectivenes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3), 163-187. DOI : 10.1007/978-981-32-9160-7_12.
- [16] A. Ogan, E. Walker, R. Baker, M. M. T. Rodrigo, J. C. Soriano & M. J. Castro. (2015). Towards Understanding How to Assess Help-seeking Behavior across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25*(2), 229-248. DOI : 10.1007/s40593-014-0034-8.
- [17] C. Pongsuwan, J. Boddy, M. Woods & Q. Balhithip. (2016). Thai Hierarchical Culture Influences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Learning. *Jurnal Sains Sukan & Pendidikan Jasmani, 5*(1), 9-21.
- [18] R. S. Shieh, E. Gummer & M. Niess. (2008). *Perspectives of the Instructor and the Students. TechTrends, 52*(6), 61-68.
- [19] K. Suzue. (2020). *The Cognitive Diversity-creative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ower-distance Orientation: A Study of Japan-based Organizations in the 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icago

-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20] K. Park. (2001).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Cultural Perception by Applying Hofstede's Model.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5(2), 159-188.
- [21] C. Woo. (2012).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Students' Questioning Behaviors in EFL Classroom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0(1), 1-30.
- [22] H. B. Park & Y. C. Song. (2018).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Focusing on Hofstede's Theor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32(3), 381-403.
- [23] H. D. Oh, J. Choi & J. P. Noh. (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35-48.
- [24] M. Cho & M. Y. Kim. (2017).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68-477.
DOI : 10.5392/JKCA.2017.17.04.468.
- [25] H. W. Cheon & M. Jun. (2019).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159-170.
DOI : 10.22156/CS4SMB.2019.9.11.159.
- [26] S. Jang & N. Kim. (2013). The relationships of Problem solving ability, Learning strategie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School achievement in the Learning community of majored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5(3), 581-602.
- [27] H. Kim (2017). Path Analysi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to Impa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arine Scieces Education*, 29(1), 40-50.
DOI : 10.13000/JFMSE.2017.29.1.40.
- [28] P. R. Pintrich, D. A. Smith, T. Garcia & W. J. McKeachie. (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3), 801-813.
DOI : 10.1177/0013164493053003024.
- [29] Y. Kim. (2002).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3(4), 81-90.
- [30] E. M. Sung, H. S. Oh & Y. Y. Kim. (2013). An Instructional Model Design of Convergence Project for Cultivating Industrial Convergence Talent in Highe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5(3), 543-580.
- [31] B. I. Park & Y. S. Park. (2013). *STEAM Education and Smart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in Convergence Education*. Seoul: PMD Academy.
- [32] S. Choi. (2015). Testing the Validity of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7(4), 1011-1032.
- [33] J. Nunally & L. Bernstein.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acGrow-Hill Higher.
- [34] J. W. Peltier, W. Drago & J. A. Schibrowsky. (2003). Virtual communities and the assessment of online marketing education.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5(3), 260-276.
DOI : 10.1177/0273475303257762.
- [35] J. Y. Kim. (2018). Recognition and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reativity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3), 149-174.
- [36] J. Lee, H. Cho & B. Jung. (2006). A Case Study on the Help-Seeking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5(3), 77-91.
- [37] S. H. Park & J. A. Chung. (2010). Exploring Self-regulated Learning as a Predictor of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Cyber-Home Learning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1-20.
- [38] S. Johnson & A. Miller. (2002). A Cross-cultural Study of Immediacy, Credibility, and Learning in the US and Kenya. *Communication Education*, 51(3), 280-292.
DOI : 10.1080/03634520216514.
- [39] M. Gillespie. (2002). Student-teacher Connection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7(6), 566-576.
DOI : 10.1046/j.1365-2648.2002.02131.x.
- [40] V. D. Bryan, S. Weaver, P. Anderson-Johnson & J. M. Lindo. (2013).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Lecturers on Learning Outcomes at a Jamaican Nursing School. *Caribbean Journal of Nursing*,

1(1), 41-48.

- [41] J. Winch. (2019). Doe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help develop students' competence in thinking critically? *Journal of Language & Education*, 5(2), 112-122.
DOI : 10.17323/jle.2019.8486.
- [42] A. Alshahrani. (2017). Power distance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EFL learning environment. *Arab World English Journal*, 8(2), 145-159.
DOI : 10.2139/ssrn.3005567.

김 해 나(Hannah Kim)

[정회원]



- 2004년 12월 : 퍼듀대학교 컴퓨터 그래픽학과 이학사
- 2007년 5월 : 퍼듀대학교 테크놀로지학과 이학석사
- 2013년 5월 : 퍼듀대학교 교육과정 및교육학과 박사(교육공학전공)

- 2019년 9월 ~ 현재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터학부 객원교수
- 관심분야 : 학습설계 및 평가, 스마트 매체와 교육환경
- E-Mail : edux021@gmail.com